

# 노령인구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조 혜 중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 1. 연구목적 및 방법

인구구조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구조는 곧 사회구조를 인구적 측면에서 대변해주는 것이다. 한국은 근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실로 커다란 사회변화를 겪었고 인구변화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년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일본과 비교 해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인구적 위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같은 목적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년 인구비, 노령화지수, 연령별 기대여명, 부양비, 연령별 성비구조, 평균성장률과 노년인구성장률 비교, 배증 기간 등 인구 내부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예비노인 및 노인인구의 거주형태 선호도와 장래의 노인생활에 대한 심리상태, 그리고 연령, 학력, 거주지역간의 관계를 설문지(광주시·전남, 廣島縣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다.

## 2. 설문조사 대상자의 구조 (단위: 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총수	211	203	무 학	28	-
시지역	98	108	초 졸	60	13
군지역	113	95	중 졸	43	44
50-54세	66	78	고 졸	50	109
55-59세	42	52	대 졸	24	37
60-64세	41	36	대학원졸	6	-
65-69세	30	19			
70-74세	21	11			
75세 이상	11	6			

## 3. 노년·노후의 거주형태 선호도 조사 ( 한국의 광주, 전남)

### 1) 한국

(1) 현재 또는 노후의 원하는 거주형태:

- (가) 자녀가 원하면 함께 살고 싶다(유형: 소극적 의존형, 분포수: 60명, 분포율: 28.4%).
- (나)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꼭 함께 살고 싶다(적극적 의존형, 23명, 10.9%).
- (다) 자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혼자(또는 부부만) 살고 싶다(적극적 독립형, 88명, 41.7%).
- (라)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회복지기관에 의존하고 싶다(소극적 독립형 6명, 2.8%).
- (마)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자녀 위임형 31명, 14.7%).
- (바) 기타(3명, 1.4%)

이를 분석해보면 전통적 가족관에서 탈피하는 자녀와의 독립형(다+라)이 94명/211명(44.5%)으로 자녀와의 동거형 또는 의존형(가+나) 83명(39.3%)보다 우세하다. 이는 경제발전과 함께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자녀에게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자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로서 받아들여진다.

거주유형을 시군별로 분류해보면

- (가)의 소극적 의존형은 시(28명/98명, 28.6%)와 군(32명/113명, 28.3%)사이의 차이가 없다.
- (나)의 적극적 의존형도 시(10.2%), 군(11.5%)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 (다)의 적극적 독립형은 시(42.9%)가 군(40.7%)보다 약간 우세하다.
- (라)의 소극적 독립형도 시(4.1%)가 군(1.8%)보다 역시 더 높다.
- (마)의 자녀 위임형은 시(13.3%)보다 군(15.9%)이 약간 더 높다.

이로써 독립형(다+라)은 시지역(47.0%)이 군지역(42.5%)보다 4.5%포인트 더 우세함으로써 대체적으로 도시민이 자녀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독립의지가 강하다 하겠다. 이를 광주광역시, 일반시, 읍지역, 면지역으로 세분해보면 각 56.6%, 35.6%, 42.9%, 42.1%로서 역시 광주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가 가장 높지만 일반시는 의외로 가장 낮다. 읍과 면이 일반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이촌향도현상을 경험함으로써 독립형의 형태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의 적극적 독립형의 이유로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41명/88명, 46.6%)를 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조용한 삶이 좋아서’(24명, 27.3%), 와 ‘자녀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22명, 25.0%)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라)의 소극적 독립형의 이유로서 ‘자녀에 의존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66.7%, 4명/6명)를 주로 택함으로써 독립형(다+라)의 주된 이유는 ‘자유롭고 편한 마음’임을 알 수 있다. 적극적 독립형의 가장 탁월한 이유인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를 거주지별로 보면 시지역 (19명/42명, 45.2%)이 군지역 (22명/46명, 47.8%) 보다 약간 낮은 반면, ‘조용한 삶’을 택한 이유는 시지역(12명, 28.6%)이 군지역(12명, 26.1%)보다 약간 높음으로써 자유로움은 군지역에, 조용한 삶은 시지역에서 약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자녀에게 폐 끼치기가 싫음’은 시지역(11명, 26.2%)이 군지역(11명, 23.9%)보다 약간 더 우세하여 전반적으로는 시·군간 대차는 없으나 노령자의 ‘자유로운 삶의 추구’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녀의존형(가+나)은 39.3%(83명/211명)로, 독립형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노인은 전통적 가족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꼭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적극적 의존형(나)은 10.9%(23명/211명)에 불과하며, 28.4%(60명/211명)는 '자녀가 원할 경우 함께 살고 싶어'하는 소극적 의존형(가)이므로 종래의 대가족적 형태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지역과 군지역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소극적 의존형의 이유로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다(가-4)'와, '자녀가 싫어할 것 같아서(가-3)'가 각각 17명(28.3%)과 16명(26.7%)으로 거의 같으며 그 밖에 '자녀가 괴로워 할까봐서(16.7%)', '자녀와 사이가 나빠질까봐(10.0%)', '기타(18.3%)'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기타'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적극적 의존형의 이유에서 '경제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나,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곤란에 대한 인식도가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서도 역시 경제적 압박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적극적 의존형의 43.5%가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아서(나-4)'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손자가 좋아서(26.1%)', '경제적 능력 때문에(21.7%)'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독립형은 자신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편이 강한 반면 의존형은 자녀의 입장 또는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편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소극적 의존형의 이유에서 시지역은 비교적 균등분포를 보이는 한편, 군지역에서는 상대적인 편차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적극적 의존형에서는 시지역이 독신의 외로움(50%)을 압도적으로 선택하였고, 군지역에서는 역시 같은 이유(38.5%)를 가장 많이 들었으나 경제적 능력(30.8%)이나 손자 때문(23.1%) 등도 높은 편이어서 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등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 독립형의 이유는 시·군간에 차이가 없으며 다만 소극적 독립형에 있어서 시지역은 압도적으로 '자녀에 의존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75.0%)'를 든 반면, 군지역에서는 이 것(50.0%) 외에도 '기타'(50.0%)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양지역에 공히 '사회복지기관의 좋은 시설'을 이유로 든 것은 전무하다. 한국노인의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후진적 시설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자녀위임형의 이유로서 55.2%(16명/29명)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마음이 편하다'를, 그리고 31.0%(9명/29명)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다'를 택하였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시지역은 각각 53.8%와 46.2%, 군지역은 72.2%와 11.2%를 보임으로써 군지역이 압도적으로 전자를 이유로 삼고 있으며 또한 양자간에 편차가 시지역 보다 훨씬 심하다.

연령별로 보면 적극적 독립형(다) : 50대의 48.1%(초반 48.5%, 후반 47.6%), 60대의 33.8%(초반 36.6%, 후반 30.0%), 70대 이상의 37.5%(초반 38.1%, 후반 이후 36.4%)로서 50대에서 가장 높고 60대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지만 50대에서 압도적인 분포를 보임으로써 역시 50대의 초로 연령층의 강한 독립성이 엿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소극적 독립형(나) (50대 9.5%, 60대 2.8%, 70대 이상 0.0%)에서도 마찬가지임.

적극적 의존형(나) : 50대의 7.4%(초반 6.1%, 후반 9.5%), 60대의 12.7%(초반 12.2%, 후반 13.3%), 70대 이후 18.8%(초반 19.0%, 후반 이후 18.2%)로서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녀와 동거하길 바라는 경향이 뚜렷함. 소극적 의존형(가) : 50대의 27.8%(초반 27.3%, 후반 28.6%), 60대의 28.2%(초반 24.4%, 후반 33.3%), 70대 이후 31.3%(초반 33.3%, 후반 이후 27.3%)로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특히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에서 탁월한 분포를 보인다.

자녀 위임형(마) : 50대의 13.0%(초반 18.2%, 후반 4.8%), 60대의 19.7%(초반 19.5%, 후반 20.0%), 70대의 9.4%(초반 4.8%, 후반 이후 18.2%)로서 60대에서 가장 탁월하다. 그러나 60대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50대와 70대에서는 초반과 후반 사이에 불균등 분포를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학력별로 보면, 적극적 독립형은 무학 48.5%, 초등 30.0%, 중졸 41.9%, 고졸 48.0%, 대졸 62.5%, 대학원졸 83.3%로서 학력과 정비례하고, 적극적 의존형은 무학 17.9%(5명/28명), 초졸13.3%(8명/60명), 중졸 9.3%(4명/43명), 고졸 10.0%(5명/50명), 대졸 4.2%(1명/24명), 대학원졸 0.0%(0명/6명)로서 학력과 반비례하고 있어 양자는 학력과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노후생활에 대한 심리상태

노후생활에 대한 심리상태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A형)'는 37.9%(80명), '불안하지만 걱정되지는 않는다(B형)'가 34.1%(72명), '걱정된다(C형)'가 28.0%(59명)로 나타나, 전체의 72.0%는 걱정하지 않는 편(A형+B형)이지만 그 중 절반 가까이는 다소간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분류해보면 시지역 거주자(98명)의 34.7%가 A형, 43.9%가 B형, 21.4%가 C형이며, 군지역은 각 40.7%, 25.7%, 33.6%로 나타나 시지역이 군지역 보다 노후생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더 세분해보면 광주광역시 37.7%, 43.4%, 18.9%, 일반시 31.1%, 44.4%, 24.4%, 읍 42.9%, 14.3%, 42.9%, 면 38.6%, 36.8%, 24.6%인바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가장 걱정하지 않으며 시와 면은 비슷한 수준인 데 비하여 특히 읍지역은 걱정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42.9%)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75세 이상의 63.6%(7명/11명)가 A형인데 비하여 바로 전 연령층인 70대 초반(70-74세)은 19.0%(4명/21명)에 불과하여 매우 대조적이며, 50대 초반(55-59세) 42.4%(28명/66명), 60대 후반(65-69세) 40.0%, 50대 후반(55-59세) 38.1% 순이다. 그러나 최소한 걱정하지는 않는 편(A+B형)은 50대 후반(81.0%), 60대 초반(75.6%), 75세 이상(72.7%), 50대 초반(71.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50대 이상 현재 또는 미래생활에 대한 심리상태의 연령층별 특색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상의 인구학적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C형은 초기노인(65-74세)이 37.3%, 후기노인(75세 이상)이 27.3%로 나타나 후기노인보다 초기노인이 더 불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75세 이상의 후기 노령층은 이미 자녀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포기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에 대한 걱정(C형)을 학력별로 보면 무학 42.9%(12명/28명), 초졸 35.0%(21명/60

명), 중졸 20.9%(9명/43명), 고졸 26.0%(13명/50명), 대졸 16.7%(4명/24명), 대학원졸 0%(0명/6명)로 고학력일수록 걱정하지 않는 형태가 뚜렷하다.

거주유형별로 보면 적극적 독립형의 46.6%(41명)와 자녀 위임형의 45.2%가 A형으로서 높게 나타난 반면, 소극적 독립형(16.7%)과 적극적 의존형의(26.1%)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의존형의 47.8%(11명)와 자녀 위임형의 35.5%(11명)가 C형으로서 높게 나타난 반면, 소극적 독립형(16.7%)과 적극적 독립형(19.3%)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대한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역시 적극적 독립형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 A형이 탁월하고 적극적 의존형에서는 걱정하는 C형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소극적 의존형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소극적 독립형에서는 B형(66.7%)이 압도적이어서 자녀와는 별거하여 사회복지기관에 의존하고픈 노인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다. 자녀 위임형은 B형(19.4%)이 가장 낮은 반면, A형과 C형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자녀의 의사대로 따르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걱정하는 편의 양극으로 분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C형은 소극적 의존형(30.0%, 18명/60명)보다 역시 적극적 의존형(47.8%, 11명/23명)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군지역에서는 소극적 의존형(37.8%)과 적극적 의존형(38.5%)에 고른 분포를 보인 데 대해서 시지역은 소극적 의존형(21.4%)과 적극적 의존형(60.0%)의 편차가 심하다. 적극적 독립형과 소극적 독립형을 통합한 독립형 가운데 노후생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A형(42명, 44.7%)이, 불안은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는 B형(34명, 36.2%)보다 높으나 걱정하는 C형(18명, 19.1%)도 상당하여 독립형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55.3%)이 적어도 불안을 느끼거나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지역은 각 47.8%, 43.5%, 8.7%, 군지역은 41.7%, 29.2%, 29.2%로 시지역 보다 군지역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A형은 50대 전반의 42.4%, 후반 38.1%, 60대 전반 31.7%, 후반 40.0%, 70대 전반 19.0%, 후반 63.6%의 분포로서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율이 감소하나 70대 후반에서는 급증한다.

독립형의 연령은 50대 전반(50-54세)이 34.0%로 가장 우세하고 50대 후반(55-59세) 25.5%, 60대 초반 17.0%, 60대 후반 10.6%로 나타남으로써 노인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독립형이 현저함을 알 수 있다.

독립형은 42.5%(48명/113명)의 읍·면 지역 보다 47.0%(46명/98명)의 시지역이 약간 우세하다. 학력별로 보면 무학 28.6%(8명/28명), 초졸 31.7%(19명/60명), 중졸 46.6%(20명/43명), 고졸 50.0%(25명/50명), 대졸 70.8%(17명/24명), 대학원졸 83.3%(5명/6명)로서 학력과 정비례한다.

전체 거주형태에서 ‘혼자 또는 부부만 살고 싶다’는 자녀로부터의 적극적 독립형(다)이 41.7%(88명/211명)로 사회복지기관에 의존하고픈 소극적 독립형(라)의 2.8%(6명/211명)보다 압도적이다.

한편, ‘자신은 상관없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자녀위임형(마)은 전체의 14.7%(31명/211명)이며 이는 군지역(15.9%, 18명/113명)이 시지역(13.3%, 13명/98명)보

다, 그리고 중졸이하(19.8%, 26명/131명)가 고졸이상(6.3%, 5명/80명)의 학력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지만 연령과는 대체로 무관하다. 그리고 자녀위임형 가운데 45.2%(14명/31명)는 미래생활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A형이며 불안하지만 걱정하지는 않는 B형까지 합하면 64.6%(20명/31명)로서 걱정하지 않는 편이 더 높다.

## 2) 일본 (廣島縣)

### (1) 거주형태 선호도

- (가) 자녀가 원하면 함께 살고 싶다(소극적 의존형, 79명/203명, 38.9%).
- (나)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꼭 함께 살고 싶다(적극적 의존형, 22명, 10.8%).
- (다)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혼자 또는 부부만 살고 싶다(적극적 독립형, 46명, 22.7%).
- (라)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회복지기관에 의존하고 싶다(소극적 독립형, 9명, 4.4%).
- (마)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자녀 위임형, 29명, 14.3%).
- (바) 기타(18명, 8.9%)

이를 분석해보면 자녀에의 의존형(가+나)이 전체의 49.7%를 차지한다. 그 중 소극적 의존형(가)이 전체의 38.9%를 차지하여 10.8%의 적극적 의존형(나)보다 훨씬 높다. 독립형(다+라)은 27.1%이며 그 중 22.7%가 적극적 독립형(다)으로 소극적 독립형(라)의 4.4%보다 압도적이다. 자녀와의 동거형(자녀의존형)이 전체의 반을 차지함으로써 독립형보다 월등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한국과는 반대현상으로서, 예상과는 상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50세 이상 고령자의 대가족적 전통지향성의 존속현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의존형은 시지역이 51.0%(55명/108명)로서 군지역 48.4%(46명/95명)보다 약간 더 높으나 특히 적극적 의존형은 시지역(13.0%)이 군지역(8.4%)보다 명확히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에서의 적극적 의존형이 시지역(10.2%)보다 군지역(11.5%)에서 약간 우세한 것과는 반대현상이다. 소극적 의존형의 이유로서는 81.0%(64명/79명)의 압도적인 비율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다'에 응답하였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다'와 '자녀가 싫어할 것 같아서'가 거의 같은 비율이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자녀가 싫어할 것 같아서'를 이유로 든 것은 겨우 2.5%에 불과하다. 또한 '자녀가 원하는 대로하지 않으면 사이가 나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도 한국은 10.0%인 데 비해서 일본은 겨우 1.3%의 무시할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자녀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결코 배타적 관계를 염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적극적 의존형의 이유로서는 63.6%(14명/22명)가 '외로움'을, 22.7%가 '경제적 능력'을 들었다. 한국에 비해서 미래 또는 현재의 외로움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며 '손자가 좋아서'는 겨우 4.5%로 한국(26.1%)과 같은 후손에 대한 애정집착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경제적 능력을 걱정하는 것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순위에 있어서 한국은 세 번째로, 일본은 두 번째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형은 시지역(25.9%)보다 군지역(28.5%)이 약간 더 높으나 연령별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학력별로 보면 초졸(38.5%)이나 중졸(31.8%)이 고졸(22.9%) 또는 대졸

(29.7%)보다 더 높고(조사 대상자 가운데 무학과 대학원졸은 없었음) 그 같은 현상은 특히 적극적 독립형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고학력보다 저학력에서 독립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과는 반대현상인 것이다.

적극적 독립형의 이유로서는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39.1%, 18명/46명)를 우선으로 들었으며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26.1%), '조용한 삶'(19.6%), '의지할 자식이 없음'(13.0%)의 순이다. 한국의 '자유로운 삶(46.6%)'보다는 '자녀에 폐 끼치고 싶지 않음'이 우선적인 이유이며 '의지할 자녀가 없다'가 한국의 1.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일본과 한국 노인의 자녀출산율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소극적 독립형의 이유로서도 역시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이나 새로운 친구 사귀기, 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자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편할 것 같다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며 이것은 한국의 노인과 다름이 없다.

자녀위임형(마)은 14.3%(29명/203명)로서 한국의 14.7%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그 이유에 있어서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마음이 편하다'(55.2%),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다'(31.0%) 등 비율에 있어서 한국과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순위에는 변함이 없다.

시·군별로 보면 시지역의 66.7%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마음이 편하다'를, 군지역은 45.5%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다'를 우선으로 택하였다. 한국은 순위에 있어 시·군지역이 동일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은 시지역이 '편한 마음'을, 군지역은 '편한 마음'보다는 '자녀 의사 존중'을 택함으로써 군지역이 자신보다는 상대(자녀)를 우선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위임형은 중졸~대졸간에 고르게 분포하지만 초졸에서는 전무한 것도 특이한 현상이며,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는 초졸학력의 30.0%가 자녀위임형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정반대를 보임으로써 확연히 비교된다. 즉, 한국에서는 초졸의 저학력 소유자가 비교적 자녀에 위임하는 행태를 보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독립형이나 위임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뚜렷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한국과 일본노인의 공통적 행태라 할 수 있다.

## (2) 노후생활에 대한 심리상태

앞으로의 노후생활에 대해 전체의 절반 이상(54.2%, 110명/203명)이 '불안하지만 걱정되지는 않는' B형에 속하지만, '걱정하고 있는' C형은 28.6%(58명/203명), '전혀 걱정하지 않는' A형은 17.2%(35명/203명)로 나타나 결국 걱정하지 않는 편이 71.4%로 압도적이긴 하나, B형을 제외하고 걱정하는 쪽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양자만을 비교해본다면 역시 걱정하는 편이 더 우세하다. 이 역시 한국(A형, 37.9%/C형, 28.0%)과는 반대현상이다.

이를 거주유형별로 보면 A형은 소극적 독립형의 44.4%, 기타 33.3%, 적극적 의존형 22.7%, 소극적 의존형 15.2%, 적극적 독립형 13.0%, 위임형의 6.9% 순으로 나타났다.

A형이 높을 개연성이 많은 적극적 독립형에서는 오히려 매우 낮고, 또한 소극적 의존형보다 적극적 의존형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율배반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C형은 적극적 독립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일 뿐, 결코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는 별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강력하게 혼자(또는 부부만)살기를 희망하면서도 의존형(가, 나), 또는 소극적 독립형(라)보다 오히려 더 노후를 걱정하는 상충적 현상을 보이는 이 같은 특성은 한국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현상이다.

이를 시·군별로 분류해보면 시지역 거주자(108명)의 20.4%가 A형, 50.9%가 B형, 28.7%가 C형이며, 군지역은 각 13.7%, 57.9%, 28.4%으로서 걱정하지 않는 편(A+B형)이나 걱정하는 편(C형)의 시·군간의 지역차는 없다. 한국에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약 10.0%이상 시지역이 높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A형만을 본다면 시지역이 20.4%로 군지역의 13.7%보다 높아 한국(시지역 34.7%, 군지역 40.7%)과는 반대이다.

연령별로 보면 A형은 70대 초반의 33.3%, 50대 초반의 23.1%에서 나타나고, 50대 후반(17.3%)과 75세 이상(16.7%)에서는 비슷하며 60대 후반(10.5%)과 60대 초반(2.8%)에서 낮게 나타난다. 한국과 비교해서 60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또한 75세 이상 후기노령자의 분포율도 낮다. B형은 연령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며 C형에서는 특히 70대 초반에서 가장 낮은 8.3%로 한국의 같은 연령층의 42.9%보다 현저하게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후기노령자의 66.7%가 B형인 반면 한국 후기노령자의 63.6%가 A형인 것도 비교된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현재의 심리적 상태를 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A·B·C형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B형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특히 A형은 한국(37.9%)이 일본(17.2%)보다 2배나 높다. 이를 시·군지역으로 분류해 보면, 시지역에서 한국은 A형(34.7%)이 C형(21.4%)보다 높은 반면 일본은 C형(28.7%)이 A형(20.4%)보다 높다. 또한 군지역에서도 한국은 A형(40.7%)이 C형(33.6%)보다 높고, 일본은 C형(28.4%)이 A형(13.7%)보다 높다. 다시 말해서 시·군별 관계없이 한국은 C형보다 A형이 높고 반대로 일본은 A형보다 C형이 높다. B형을 제외하고, 장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A형과 걱정하는 C형만을 대비해 보았을 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C형이 A형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단순히 C형만을 절대 비교한다면 군지역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게 나타남).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C형은 초졸(30.8%)과 중졸(43.2%)에서 높게, 고졸(25.7%)과 대졸(18.2%)에서 낮게 나타나며, A형은 반대로 초졸(7.7%)과 중졸(9.1%)에서 낮게, 고졸(17.4%)과 대졸(29.7%)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학력과 반비례적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 4. 결 론

일본은 1970년에 노년 인구비 7.1%로서 노령화국이 되었고 1995년에는 14.5%에 이르게 되면서 노령국가가 된 데 반해서 한국은 1998년에 겨우 7.0%의 노형화 국가가 되었다. 한국이 노령국가에 이르는 시기는 대략 2016~2018년일 것으로 예측된 바, 일본에 비해서 약 20여 년 이상 늦다. 이 같은 현상은 노년부양비나 노령화지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거주형태 선호도에 있어서 한국은 독립형(44.5%)이 강한데 대해서 일본은 의존형(49.7%)이 월등 우세하다. 이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대가족적 전통지향성 존속이 한국보다 일본에서 탁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적극적 의존형은 시지역(13.0%)이 군지



역(8.4%)보다 확실히 우세한 것도 한국과의 차이이다.

소극적 의존형의 이유에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자녀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결코 배타적 관계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적극적 의존형에 있어서도 후손에 대한 애정집착이 미약한 편이다. 저학력에서 독립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비교적 저학력 소유자에서 자녀 위임형 행태를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국과 대조된다. 의지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독립형을 선택하는 이유가 일본은 13.0%나 되어 한국의 1.1%보다 압도적인 것은 자녀출생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립형이나 위임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뚜렷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한국과 일본노인의 공통적 행태라 할 수 있다.

노후 심리상태에서 대체로 한·일간에 걱정하지 않는 편이 우세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 쪽(A형)과 걱정하는 쪽(C형) 양자비교하면 일본은 C형(28.6%)이 A형(17.2%)이 더 우세하다. 이 역시 한국(A형 37.9%/C형 28.0%)과는 상반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A·B·C 형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B형이 압도적이며 특히 A형은 한국(37.9%)이 일본(17.2%)보다 2배나 높다. 또한 일본은 C형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래에 대한 근심도는 한국이나 일본에 공히 학력과 대체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은 특히 근래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므로 여기에 유념하여 노인문제연구와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통계청, 연도별, 센서스
-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지표
- 보건복지부, 2000, 보건복지백서(2000)
- 總務廳統計局, 2000, 日本の統計(2000)
- 總務廳統計局, 年度別, 國稅調查報告
- 總務廳統計局, 1995, 我が國人口の概觀
- 總務廳, 2000, 高齡社會白書